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이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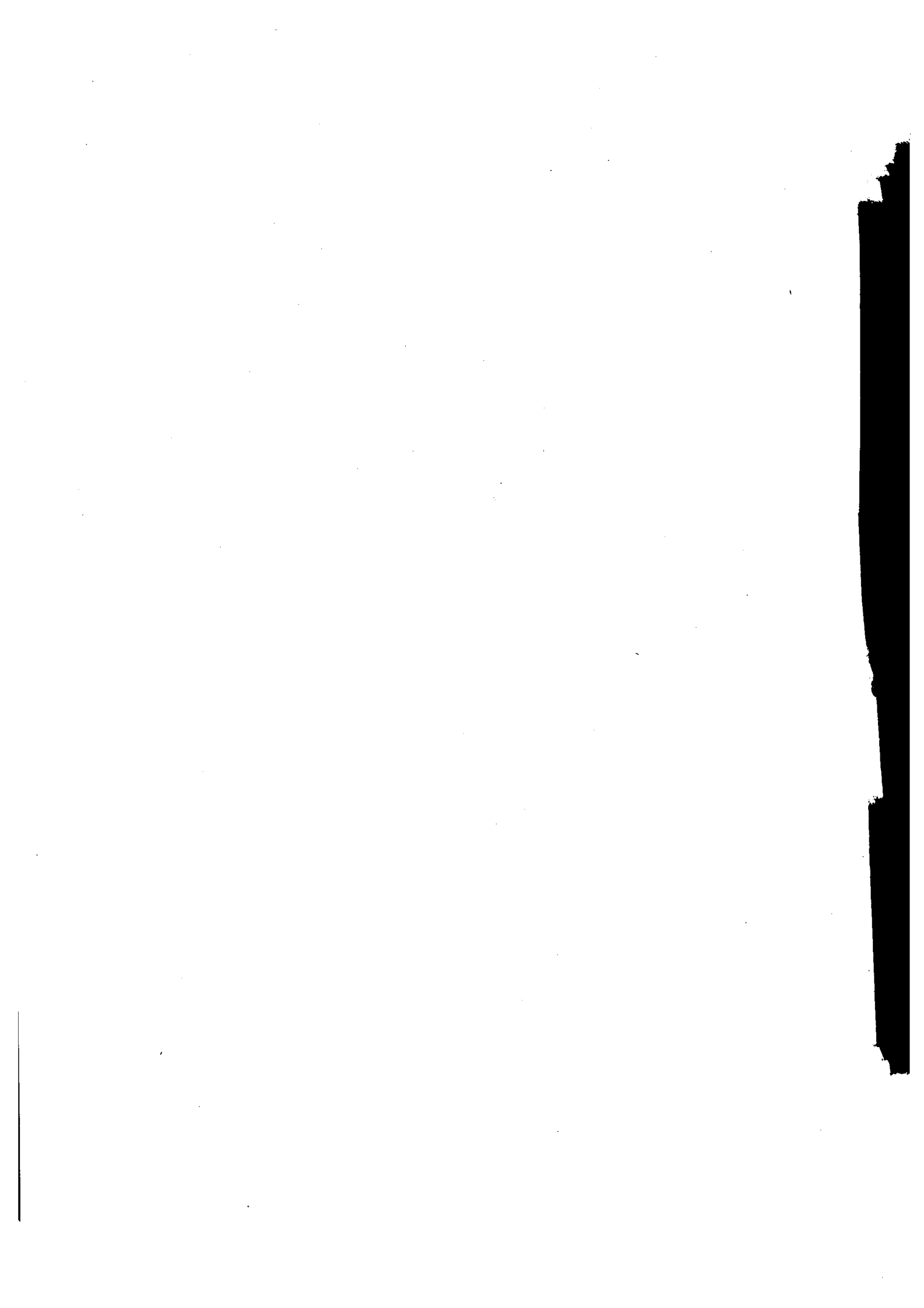
南北韓比較

南北韓의 第三世界에 對한 外交力量
比較 研究

研究執筆責任 金 泰 瑞

刊行責任 金 淳 培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I. 머 리 말	3
II. 南北韓의 地域別 力量關係	4
III. 南北韓의 國際機構內 力量關係	42
IV. 結 論	68

I. 머 리 말

非同盟의 胎動을 가져온 「BANNDUNG」會議는 25周年을 맞이하였다.

初期 非同盟圈은 反植民主義를 旗幟로 하여 新生國을 거의 網羅한 肥大한 「BLOC」으로 形成되면서 独自の 勢力集團을 構成하였다.

이제 植民地解放運動이 終熄되면서 第3世界는 非同盟運動을 主軸으로 團結을 推進力으로 하면서 經濟問題를 政策目標로 하고 있다.

自發적으로 發生된 非同盟運動은 機構와 組織面에서 拘束力이 不在하고 있음이 特性이나 이 運動의 發展問題와 相互 協力問題에는 原則적으로 意思가 一致되는 行動을 取하고 있다.

그러나 各國의 利害가 相反된 經濟問題를 重要 「ISSUE」로 하고있는 오늘의 非同盟運動은 團結의 限界性이 造成되는 一面을 보이고 있으나 UN 및 國際機構等에서 發言權을 높이면서 政治的 影響力을 增大시키고 있다는 點에서 큰 比重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北傀가 先占한 非同盟圈은 國際革命力量 確保라는 戰略推進으로 하여 我國의 非同盟 및 第3世界外交에 挑戰을 받고 있다.

이에 南北韓의 第3世界에 對한 外交力量關係를 資料中心으로 綜合, 時期 및 特異活動 樣相別로 区分 南北韓의 力量關係를 比較研究코져 한다.

Ⅱ. 南北韓의 地域別 力量關係

1. 亞細亞地域 情勢概況

2次大戰後 植民主義 支配를 벗어난 이地域 國家들은 民族主義를 高唱하면서 1947年 印度, 「파키스탄」等 9個國이 40年代 新生國으로 誕生하였다.

50年 韓國戰爭으로 因한 東·西陣營의 對決等 美·中·蘇를 위시한 烈強들의 角逐이 尖銳化된 이地域은 69.7 「닉슨 닥트린」과 72年 「닉슨」의 中共訪問等의 情勢에 對應하여 脫美傾向을 보이면서 1975年 4月 印支半島 共產化로 因한 情勢不安과 強大國間의 干涉排除 및 域內自求策을 講究하기 위한 東南亞國家聯合 (ASEAN)이 1976年 創設되었고 이를 통한 地域內 協力體制를 強化하고 있다.

가. 50年代 南北韓의 外交力量

1950年代 南北韓의 亞細亞地域 外交는 韓國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로서 承認을 獲得하는데 努力을 기우렸으며 北傀는 이地域의 親西方路線으로 因해 初步的 連繫造成에 注力하였다.

韓國은 이地域 新生國들의 反共政策에 基礎하여 自由中國, 越南, 泰國과 外交關係를 早期에 樹立하고 1949年 7月 最初 自由中國에 公館을 開設하면서 이들 國家들과 頂上外交를 통한 亞細亞地域 外交의 政治的 基盤을 마련하는 한편 反共統一戰線 形成에 注力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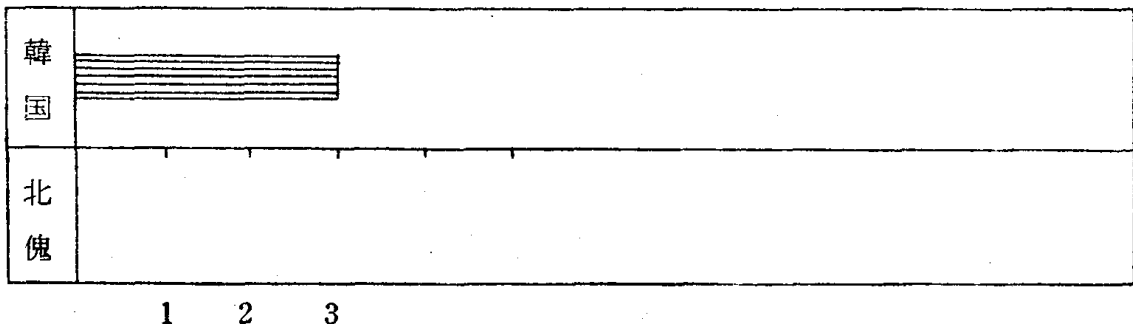
北傀는 이地域 浸透 일환으로 反植民主義 主張과 經濟 文化 등의 非政治分野에서 進出基盤을 造成해 나가면서 1955年 第1次 亜
 • 阿頂上會議를 契機로 하여 中立圈外交의 必要性을 力說하고 1957
 年 印尼, 印度, 「버마」 등과 貿易協定締結에 이어 「버마」에 代
 表部를 設置하였다.

北傀의 50年代 亜細亞地域 浸透特徵은 韓國이 反共國을 中心으
 로한 親善關係를 急速히 結束한데 比해 貿易協定 등으로 接近에
 注力한 것이다.

< 韓國의 頂上外交現況 >

招 請	訪 問
自由中国 49.8 장개석	53. 11 大統領 李承晩
越 南 57.9 大統領「고딘디 엠」	58. 11 "

< 50年代 南北韓의 对亜外交伸張現況 >



< 50年代 南北韓 外交力量現況 >

() 樹立年度

南北 区分	韓 国	北 傀
大 使 関 係 計	自由中国 (48), 越南 (55) 泰国 (58) 3	
代 表 部 計		버 마 (58) 1
貿 易 協 定 計		印 尼 (57) 印 度 (57) 버 마 (57) 3

< 50年代 北傀의 对亜論調 >

「亜細亞에서 植民地 民族解放運動이 노도와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運動은 어떠한 武力으로서도 어떠한 軍事的 力의 조작으로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亜細亞에서의 帝國主義 植民地体系의 運命에 最終을 고하는 이

모든 事變들이 우리 革命勝利에 至極히 有利한 影響을 주고 있다
는 것은 明白하다」 (56.4 第3次党大会)

「植民主義를 反對하는 印度, 비르마, 인도네시아, 아프카니스탄等の
國家들과 親善關係를 樹立할 用意가 있다」 (56.4 第3次党大会)

「반동회의는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공고한 평화를 지향하는 수역
만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일치한 염원을 표명한 것으로 이지
역 인민들의 장성하는 단결을 뚜렷이 보인 것으로 제국주의자들에
큰 타격이다」 (56.4 第3次党大会)

「우리는 인도, 인도네시아등 아세아 나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
며 상호이익의 기초위에서 경제적 및 문화적 연계를 발전시키기위
해 노력할 것이다」 (57.9.2 最高人民會議 2期1次)

나. 60年代 南北韓의 外交力量

60年代 南北韓의 對亞外交는 보다 積極性을 띄고 있다.

韓國은 5.16 革命以後 多邊外交 展開를 推進하면서 印度, 「비
마」等 5個國에 總領事館을 設置하고 50年代 反共을 主軸으로한
國家關係를 持續시켰다.

64.9 醫務中隊를 위시한 越南派兵과 66年 6月 韓國의 主導
下에 政府間 國際機構인 「亞細亞·太平洋閣僚理事会」(ASPAC :
7個國) 創設等은 反共外交가 主流를 이룬 것이었다.

또한 이들 國家들과 首腦外交를 展開하는 가운데 亞·太地域의
經濟技術, 文化社會等の 諸分野에서 地域協力을 促進하는데 66年

10月 7個国頂上会談을 開催하여 「마닐라体制」를 誕生시키는 等 相互協力 增進에 寄与했다.

한편 北傀는 50年代 後半부터 싹트기 始作한 中立圈 外交를 展開하는 가운데 韓國의 反共外交路線에 対応하여 64年 11月 印尼의 「스카르노」招請에서 国交를 樹立하고 同年 12月 「캄보디아」修交에 이어 65年 4月 金日成의 「반둥」會議 10周年記念行事 参席等으로 雙方關係를 發展시키면서 이른바 反美아세아統一戰線(北京-자카르타-프놈펜-平壤)을 構築하는데 注力하면서 66年 12月 第1回 아세아 「카네포」大会(캄보디아: 17個国参加) 参席等으로 外交 基盤을 굳혀 나갔다.

60年代 이地域에서 南北韓 外交特徵은 韓國이 反共을 土台로 相互協力体制를 結成하여 地域發展을 꾀한데 比해 北傀는 이에 对하여 反美統一戰線 形成에 注力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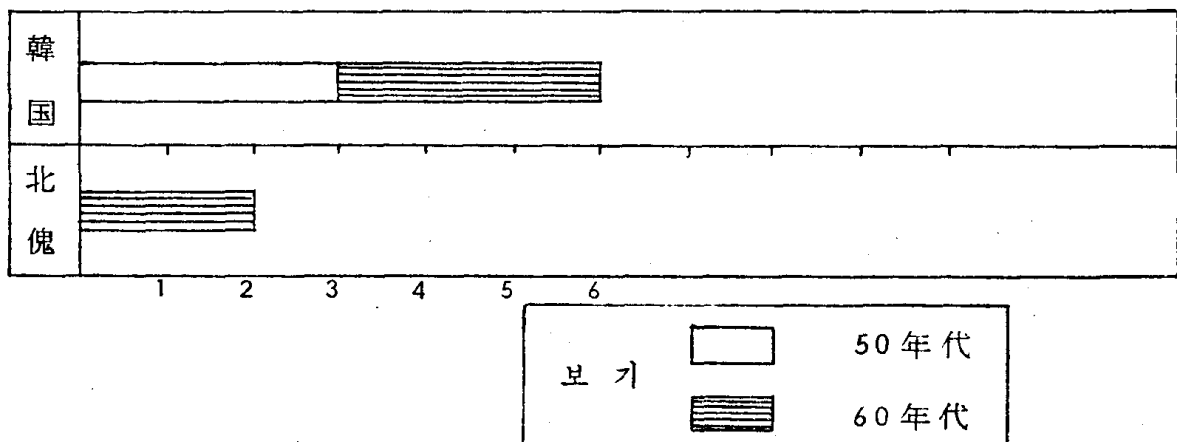
< 60年代 北傀首腦外交 >

区 分	国 家	日 時	首 腦
招 請	印 尼	64. 1	「스카르노」北傀訪問
訪 問	”	65. 4	金日成 印尼訪問

< 60年代 韓国首腦 外交 >

区 分	国 名	日 時	首 腦
訪 問	말 레 이 시 아 自 由 中 国 泰 国	66. 2	朴大統領
	越 南	66. 10	" (非公式)
	호주, 뉴질랜드	68. 9	"
招 請	말 레 이 시 아	65. 4	「라만」首相
		69. 4	「나시루딘」国王
	越 南	65. 11	「키」首相
		69. 5	「티우」大統領
	泰 国	67. 4	「타놈」首相
	호 주	67. 4	「홀트」首相

< 60年代 南北韓의 对亜外交伸張現況 >



< 60年代 北傀의 対亜 論調 >

「쌍방은 반동회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에서 상호 지지하며 긴밀히 협조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64.11.4 「스카르노」北傀訪問, 共同声明)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의 실현은 월남인민에 대한 지원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수 있게 하며 이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시키고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있게 한다」

(66.10.5 党代表者會議)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유리하다」 (67.8.12 프리콘티넨탈 論說)

「조선인민은 아세아와 세계 모든 반제력량관계와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모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1963年 金日成 新年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는 미제와 박도당이 남부월남에 남조선괴뢰군을 파견하는 책동을 남북전체 월남인민을 반대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행위로 인정한다」

(66.3.7 北傀政府声明)

다. 70年代 南北韓外交力量

72年 美·中共和解와 73年 濠洲勞動黨의 執權등 아세아地域의 情勢變化로 因해 韓國이 主軸이된 反共戰列이 되색하자 韓國은 60年代 外交基盤을 土臺로하여 이地域에 對한 外交努力의 일환으로서 周邊國 및 地域協力體를 強化하는데 注力하였다.

70年初 南·西太平洋 新生國인 「통가」, 「피지」 등과 早期에 國交를 樹立하고 主導國인 濠洲를 위시한 西사모아 等 4個國首腦級을 招請, 紐帶를 強化시켰다.

75年 4月 印支半島의 共產化로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이어 親蘇化된 「아프카니스탄」과 國交가 斷絶되고 資源保有國들인 「ASEAN」 5個國에 對한 經濟協力을 크게 增進시켰다.

北傀 역시 71年 11月 黨 5期 3次 全員會議에서 美·中共關係 및 中共의 UN加入 등으로 因한 構造的 變化에 對應하여 「國際情勢에 提起된 몇 가지 問題」를 討議 議題로하고 柔軟外交 驅使의 一環으로 對匪外交를 積極化시키는 一方 60年代 後半부터 試圖한 反美 統一戰線 構築問題를 持續하고 아세아地域에서 그들 外交力을 伸張시키는데 注力하였다.

70年代에 韓國은 印尼, 「스리랑카」等 14個國과 國交를 樹立하였으며 北傀는 「스리랑카」, 「파키스탄」等 16個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하므로써 南北韓의 外交力量은 對等한 水準에 이르렀으며, 印度, 「방글라데쉬」, 「네팔」, 「버마」, 「싱가폴」等 6個國이 南北韓과 同時 修交한 것은 이地域 國家들의 對韓半島政策에 中立態

度를 固守하는 政治的 性向을 보여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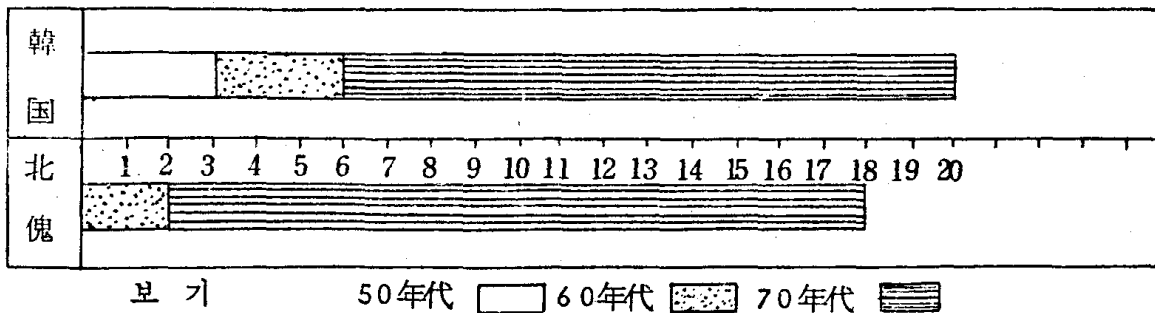
70年代 南北韓의 對亞外交는 民族主義 意識이 強한 이地域에서 南北韓에 對한 政治的 中立固守政策에 따라 外交伸張이 對等하게 되었다.

韓國이 經濟的 緊密關係 維持로 北傀를 圧倒하고 있으나 78年 부터 示顯되기 始作한 交易推進 政策에 따라 隣接 亞細亞地域에 方向을 設定하고 泰國, 「버마」, 「말레이지아」 등과 漸進的 交流를 活潑히 推進하고 있다.

< 70年代 韓國 首腦 外交 >

国 家	招 請 日 時	招 請 者
濠 洲	76. 4	「멀둔」首相
西 사 모 아	76. 8	「라누마피리」国家元首
파 푸 아 뉴 기 니 아	78. 6	「찬」副首相
피 지	78. 6	「마라」首相

< 70年代 南北韓의 對亞外交伸張現況 >



< 70年代 南北韓 外交力量 伸張現況 >

() 關係樹立年度

南 北 区分	韓 国	北 傀
外 交 關 係	통 가 (71) 피 지 (70)	스리랑카(70) 말 디 브 (70)
	西사모아 (72) 인 니 (73)	파키스탄(72) 말레이시아 (73)
	印 度 (73) 방글라 (73)	방글라데쉬 (73) 印 度 (73)
	네 팔 (74) 버 마 (75)	아 프 칸(73) 네 팔 (74)
	싱 가 폴 (75) 파푸아 (76)	라 오 스(74) 濠 洲 (74)
	스리랑카 (77) 솔모몬 (78)	피 지 (75) 泰 国 (75)
	투 발 루 (78) 나우루 (79)	버 마 (75) 싱 가 폴 (75)
		파 푸 아(76) 西 사 모 아 (78)
計	14	16
貿 技 易 術 및 經 協 濟 定	네 팔 (71) 濠 洲 (75)	방글라데쉬 (74) 말레이시아(75)
	방글라데쉬 (73) 印 度 (74)	아 프 칸(78) 泰 国 (78)
	필 리 핀 (78)	
計	5	4

< 70年代 北傀의 對亞論調 >

「오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치열한 鬪爭전선으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 있다」 (70.11 党5次大会)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지역에 혁명하는 나라들 싸우는 나라들이 많고 이지역에서 반제혁명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며 제국주의자들의 기반이 밀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70.11 党5次大会)

「아세아 혁명적 나라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71.8.6 「시하누크」 환영시 金日成)

「지난날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멀리하던 동남아세아의 일부 나라들도 지금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고 있다」 (74.9 金日成)

「20세기 민족해방운동이 가장 치열한 아세아는 정치투쟁의 무대이다」 (77.5 新興勢力은 反帝革命力量)

「아세아는 혁명을 분만하는 여러가지 모순의 집결처였으며 제국주의 전선의 연쇄가 가장 약한 고리였으며 세계정치투쟁의 결전장이었다」 (上 同)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침략을 강화하는 한편 악명높은 새아세아정책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적 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 하고 있다」 (70.11 党5次大会)

2. 中南美地域 情勢概況

中南美는 西歐諸국이 大部分進出, 定着한 地域으로 「볼리비아」 「베네주엘라」等 18 個국에 이미 19 世紀에 獨立을 이루었으나 政治 經濟的 격차의 深化로 美國의 絶對的 影響下에 있었다.

地域協力체인 美洲機構(OAS), 「안데스」共同市場(ANCOM), 中南美共同市場(CACM), 「카리브」共同市場(CARICOM) 등을 通해 中南美國家들이 相互協力を 圖謀하고 있으나 역시 美國이 主軸을 이루고 있다.

1959 年 「쿠바」의 左傾政權 樹立으로 反美運動이 서서히 到來하면서 70 年代 資源確保와 非同盟運動이 波及되었고 實利追求路線의 增大는 自然 美國의 影響에 맞서면서 各國의 自主外交展開로 對共產圈 浸透與件이 好轉되고 있다.

가. 50 年代 南北韓의 外交力量


1948 年 韓國政府 樹立直後 이 地域國家들의 大部分이 韓國을 承認하였다.

承認背景은 韓國의 外交的 努力보다 美國의 影響力이 奏効한 것이었고 最初 59 年 「브라질」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여 外交起點을 삼았으나 北傀의 同地域에 對한 50 年代外交는 全無한 狀態이었다.

< 50 年代 南北韓外交力量 伸張現況 >

区分 \ 南北	韓 國	北 傀
外交關係	브라질 (59)	
計	1	

< 50年代 南北韓의 對中南美 外交伸張現況 >

韓 國	
北 傀	1

나. 60年代 南北韓外交力量

1960年代 南北韓의 中南美外交는 韓國의 對美外交가 50年代에서 60年代에까지 韓國外交를 代弁하였고 北傀를 越等하게 앞서는 가운데 62年을 前後로하여 大挙 20個國과 國交를 樹立하고 所謂 3大陸人民鬭爭을 主唱하기 始作하였으나 美洲機構(OAS)에서 「쿠바」를 除名하는 等 反「쿠바」情勢로 活氣를 띠지 못하고 「칠레」, 「볼리비아」 等に 左派勢力들과의 親善協會를 結成하는 極히 微弱한 活動이 展開되었다.

1962年 韓國은 海外移住法 公布를 始發로하여 同年 12月 「브라질」에 18世帯(92名) 移住와 1969年 「수리남」에 漁業基地設置等으로 實質的 關係發展을 위한 契機를 마련하였다.

< 60年代 北傀親善協會 結成現況 >

國 名	結 成 日	團 體 名
알 제 틴	68. 5	「알제틴」 - 朝鮮親善協會
칠 레	62. 5	「칠 레」 - "
볼 리 비 아	63. 5	「볼리비아」 - "
우 루 과 이	68. 5	「우루과이」 - "

< 60年代 北傀의 对美洲論調 >

「우리당과 정부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발전시키는 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고리로 삼고 있다」 (61.9.11 党4次大会)

「현시기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쿠바혁명을 보위하는 것이다. 쿠바혁명의 승리는 미국의 코앞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의 계속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진영을 서반구에까지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사변이다. 쿠바공화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의 기지로 되고 있다.」

(66.10.5 党代表者會議)

「쿠바혁명을 보위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쿠바혁명을 보위하며 쿠바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66.10.5 党代表者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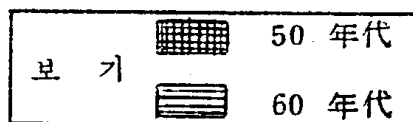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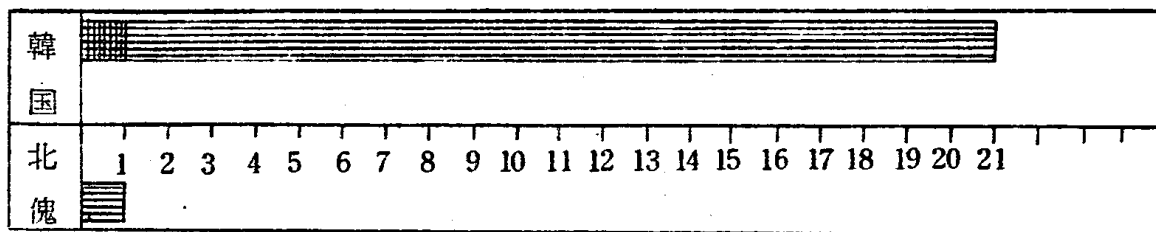
「쿠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의 첫 승리이며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이다」

(68.10.8 트리콘티넨탈 8号)

「우리는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영용한 무장투쟁을 벌리고 있는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과테말라, 볼리비아, 도미니카, 페루 인민들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한다」

(68.9.7 政權樹立 20周年)

< 60年代 南北韓의 對中南美 外交現況 >



< 60年代 南北韓 外交力量 伸張現況 >

南北 区分	南 韓 国	北 韓 傀
外 交 関 係	니 카 라 과(62) 멕 시 코 (62) 콜 롬 비 아(62) 혼 두 라 스 (62) 알 젠 틴(62) 칠 레 (62) 도미니카共(62) 파 라 과 이 (62) 코스타리카(62) 엘 살 바 돌 (62) 하 이 티(62) 파 나 마 (62) 에 과 돌(62) 자 마 이 카 (62) 과 테 말 라(62) 페 루 (63) 우 루 과 이(64) 볼 리 비 아 (65) 베 네 주 엘 라(65) 가 이 아 나 (68)	쿠 바 (60)
計	20	1
貿 協 易 定	브 라 질(63) 멕 시 코 (66)	우 루 과 이 (63)
計	2	1

다. 70年代 南北韓外交力量

70年代 「자마이카」를 爲始한 11個국의 非同盟加入과 北傀加入은 이地域에서 非同盟圈을 위한 北傀와의 連繫性을 賦與하였고 各國의 民族自立 樣相은 反美氣運과 左傾勢의 擴散을 가져왔다.

韓國은 既存 外交力量을 基盤으로하여 「그레나다」, 「수리남」等 5個국과 修交를 이루어 力量을 伸張시키면서 「엘살바돌」, 「과테말라」等の 首腦招請을 展開하고 實質的 協力關係를 摸索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北傀는 70年初 民間外交의 일환으로 親北團體의 結成에 拍車를 加하고 初步的 浸透의 與件을 마련하면서 左傾政權의 抬頭에 便乘하여 「가이아나」, 「코스타리카」等 9個국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가이아나」의 大統領, 首相等의 招請을 通해서 「쿠바」以後 이地域浸透의 實質的 掘占을 確保하였다.

70年代 南北韓外交는 韓國이 既存友好關係를 바탕으로 하여 相互 實利에 立脚한 經濟協力 圖謀에 두고 對北傀 優位堅地에 重點을 두었으며 北傀는 이地域에서 最初 外交伸張을 보이는 成果를 契機로하여 力量擴大에 全力을 기우리고 있다.

< 70年代 南北韓 首腦 招請 現況 >

内容 南北	国 家	日 時	招 請 者
韓 国	엘 살 바 들 과 태 말 라 그 레 나 다	70. 9	「산체스」 大統領 副統領 首 相
北 傀	가 이 아 나	77. 4 78. 4	「아더청」 大統領 「변함」 首 相

< 70年代 北傀親善团体 結成現況 >

国 名	結 成 日	名 称
콜 롬 비 아	72. 11	「콜」 - 朝鮮親善協會
코스타리카	74. 9	「코」 - "
에 쿠 아 돌	71.	金日成勞作研究所
페 루	70. 8	「페」 - 朝鮮親善協會
베네주엘라	74. 10	「베」 - "
파 나 마	74. 11	「파」 - "
칠 레	71.	朝鮮人民과 連繫性委員會
우 루 과 이	72. 8	朝鮮統一支持委員會
혼 두 라 스	73. 8	「혼」 - 朝鮮親善協會

< 70年代 北傀의 对中南美論調 >

「우리는 칠레에서 군사파쇼악당들이 반동적 군사정변을 일으켜 아옌데를 살해하고 합법적인민통일정부를 전복하였을 때에도 자주적 입장에서 칠레와 국가관계를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칠레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73.10.11 人民党政治指導員大会)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우익보수정당들은 예속적인 자본주의발전의 적극적인 옹호자이며 민족해방혁명의 극악한 원수이다」
(77年社会科学出版, 新興勢力은 反帝革命力量)

「페루에서 미국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광산들을 국유화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페루정부가 취한 국유화 조치에 의하여 미국놈들이 틀어 쥐고 있던 회사들이 전민소유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페루에 사회주의적 경제형태가 새로 생겨 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上 同)

「라틴아메리카에서 신흥세력의 대열이 늘어나고 반제혁명 역량이 장성함에 따라 토지문제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해결을 위한 투쟁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上 同)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지배와 통제를 반대하고 민족적 자주권과 자연부원 영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74. 第3世界人民들의 革命은 勝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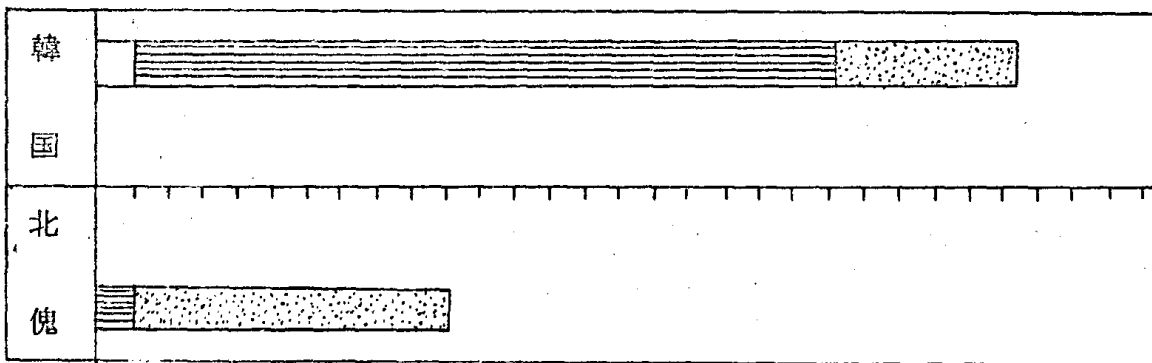
「새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칠레인민은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으며 우루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 인민들이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 쿠바인민과 칠레인민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72年 金日成 新年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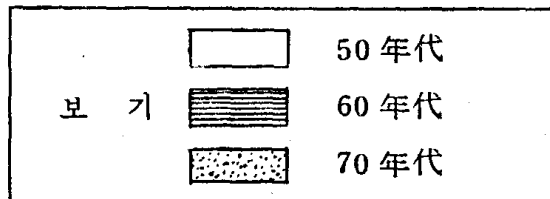
「제국주의자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저들의 낡은 지배 체제를 유지해 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나와 보다 교활한 침략과 간섭책동에 매어 달리고 있다」

(78.4 金日成)

< 70年代 南北韓의 对中南美 外交伸張現況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70年代 南北韓 外交伸張現況 >

南 北 区 分	韓 國	北 韓
外 交 関 係	그레나다 (74) 수 리 남 (75) 발바도스 (77) 도미니카聯 (78) 세인트루시아 (79)	코스타리카 (74) 가이아나 (74) 자마이카 (74) 베네주엘라 (74) 발바도스 (77) 그레나다 (79) 니카라과 (79) 도미니카聯 (79) 세인트루시아 (79) ※ 칠레 72年修交→73年断交 알젠티 77 " 77年 "
計	5	9
代表 部		페 루 (74)
計		1
貿 易 協 定	엘살바돌 (70) 가이아나 (73) 페 루 (74) 코스타리카 (76) 칠 레 (77) 과테말라 (77) 하 이 티 (77)	칠 레 (72) 가이아나 (72) 페 루 (74)
計	7	3

3. 中東・阿地域 情勢概況

19世紀 西歐烈強의 退潮로 50年代 以前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等 13個국이 獨立國家 體制를 確立하였고 反植民主義를 骨幹으로 한 아프리카의 民族主義 運動과 中東戰을 위요한 아랍民族主義 熱風은 反西方路線으로 轉換을 더욱 促進시켰다.

60年 「아프리카 해」를 期하여 「가봉」, 「나이제리아」, 「소말리아」等 19個국이 新生國으로 誕生하였으나 아프리카大陸에 部分的으로 잔재한 民族解放運動은 持續되었다.

中東戰을 통한 石油武器化 政策으로 資源民族主義는 國際政治에서 發言權을 強化시켰으나 유대인과 아랍人間의 極限的 對決은 相存하고 있다.

이들 國家들은 政治的 獨立을 期하였으나 產油國의 橫暴로 非產油國의 技術落後와 經濟的 後進性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因한 西方 및 共產圈에 對한 依存을 不可避하게 하였고 隣接國家間의 紛爭이 빈발되고 있으며 아프리카團體機構(OAU), 西阿經濟共同體(ECOWAS) 東阿經濟共同體(EAC)等 地域協力機構가 있으나 各國의 利害相衝으로 發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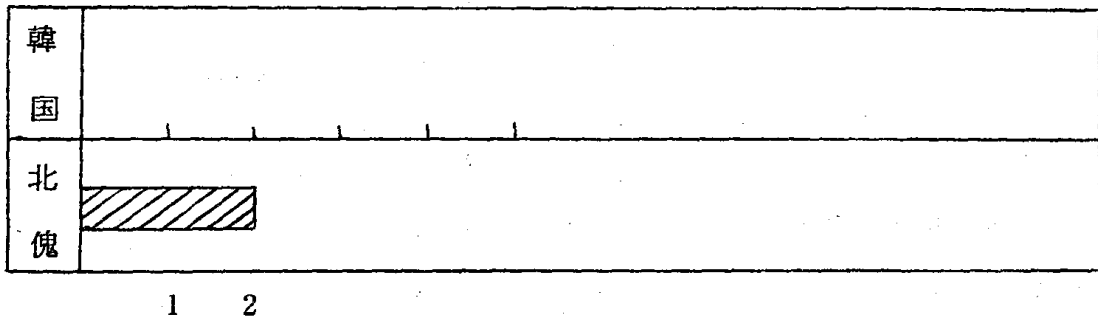
가. 50年代 南北韓外交力量

50年代 韓國은 6.25 動亂時 UN決議에 依한 「에치오피아」 南阿聯邦의 派兵으로 이地域 國家들과 最初 連繫을 맺은 以外는 中東・阿外交의 不毛地였다.

北傀는 反帝 反植民 民族解放鬪爭에 對한 支持標榜으로 連繫性을

強化하면서 57年 「시리아」, 埃及等과 貿易協定을 締結하데 이어 58年에는 「알제리아」, 「기니아」와 國交를 樹立하여 外交基盤을 造成하였다.

< 50年代 南北韓의 對中東・阿外交伸張現況 >



< 50年代 南北韓 外交力量 >

区分	南 韓	北 韓
外交關係		알제리아 (58) 기니아 (58)
計		2
貿易協定		시리아 (57) 애굽 (57) 이락 (59)
計		3

< 50年代 北韓의 對中東・阿論調 >

「우리나라와 印度, 「인도네시아」, 말련 그밖에 다른 아세아, 아

프리카 인민들과의 경제 및 문화적 연계가 점차 밀접하여지고 있다」
(57.9.20 最高人民會議 第2期1次)

「조선인민은 외래침략자를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중근동지역에서 미·영제국주의 군대가 당장 물러 갈 것을 강경히 주장한다」

(58.9.8 政權樹立 10周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민족적 독립국가와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58.9.8 政權樹立 10周年)

나. 60年代 南北韓外交力量

60년의 「아프리카 해」宣言은 이地域 新生國들에게 對한 觀心을 高潮시켰고 韓國의 對阿外交 역시 孤立外交를 脫皮하기 위한 積極外交에 따라 外交活動을 活潑히 展開하였다.

60年 1月 韓國은 對阿地域에 最初 巡訪外交를 展開한 것으로 駐仏 丁一權 大使를 團長으로한 親善代表團을 「라이베리아」, 「리비아」, 「튀니시아」等 6個國에, 同年 6月에는 孫元一 駐獨大使를 「콩고」, 「카메룬」, 「나이제리아」等 7個國에 巡訪케 하고 招請 外交 推進과 文化交流에 이어 英·仏 等 既存 宗主國들과의 幕後 交涉等 多角的 外交채널을 驅使하여 60年代 초반(61~62)에 「니제르」, 「아이보리코스트」, 「차드」 等 21個國과 國交를 樹

立하여 外交力量을 伸張시켰다.

한편 北傀는 反植民 民族解放鬪爭 旗幟를 앞세우면서 61年 「모로코」, 「말리」 등과 最初 貿易協定締結과 北「에멘」, 「소말리아」 등에 貿易代表部, 埃及, 「이락」 등에는 總領事館을 設置하는 등으로 60年代 前半期에 「말리」, 「우간다」, 埃及 等 8個国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

60年代 이地域에서 南北韓 外交特徵은 韓國이 60年代 前半期를 中心으로 積極的 巡訪外交를 展開하여 總 26個国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領事 및 代表部를 各各 1個国에 設置하는 急激한 伸張勢를 보이면서 「HALLSTEIN」原則 適用으로 「콩고」와 「모리타니아」에서 公館을 撤収하는 등의 外交力量을 誇示하였다.

北傀는 代表部 領事館設置等 段階的 接近을 強化하면서 韓國의 外交伸張에 刺戟, 66년부터 部分的 巡訪外交를 展開하고 第3次 中東戰을 契機로 아랍強硬国과의 結束을 強化하면서 60年 後半에 「시리아」, 「이락」 等 10個国을 비롯한 總 18個国과 国交를 樹立하였다.

특히 60年 後盤期에는 南北韓 共히 首腦外交를 積極 實現한 期間이었다.

< 60年代 南北韓 首腦外交 現況 >

区分 南北	国名	日時	招請者
韓國	레 소 토	66,69 年	「조나탄」首相
	에치오피아	68 "	「셀라시에」皇帝
	니 제 르	69 "	「하마니」大統領
北 傀	말 리	64.10	大 統 領
	콩 고	65. 8	"
	모리타니아	67.10	"
	탄 자 니 아	68. 8	"
	南 에 멘	69. 5	"
	시 리 아	69. 9	国 家 首 班

< 60年代 北傀의 对中東·阿論調 >

「우리당과 공화국정부와 전체인민은 앞으로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모든 피압박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다」

(62.10.23 最高人民會議 3期 1次)

「식민지 예속국가인 민들의 반제 민족해방투쟁은 국제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의 한고리이며 평화유지의 강력한 요인이며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을 자기의 대외정

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62.10.23 最高人民會議 3期 1次)

「조선인민은 아랍인민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기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 결의와 투지에 충만되어 있다」 (67.6.7 勞動新聞論說)

「오늘 아랍세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서 전체 아랍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로 되고 있다.

박정권은 이스라엘과 대사를 교환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65.1.22 政府聲明)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남로데시아에서의 미·영 제국주의자들과 스미스도당의 범죄적인 도발책동을 견결히 규탄하며 그들을 반대하는 짐바브웨인민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65.11.17 政府聲明)

「조선인민은 아랍인민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기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 결의와 투지에 충만되어 있다」 (67.6.6 政府聲明)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하며 번

영을 위한 「알제리」, 「기네」, 「말리」, 「콩고」, 「탄자니아」,
「모리타니아」, 「남부예멘」, 「예멘아랍공화국」, 「부룬디」, 「소말
리아」, 「잠비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68.9.7 政權樹立 20 周年)

< 韓國의 對中東・阿 巡訪現況 >

(65 ~ 69 年)

年 度	使 節 團 長	訪 問 國
1965	崔斗善 特使	세네갈, 아이보리, 니제르, 베닌, 나이제 리아, 中央阿, 차드, 가봉 (8 個國)
	李寿榮 大使	우간다, 말라위, 케냐, 소말리아, 이디오 피아, 수단, 튀니지아 (7 個國)
1966	이동원 外務長官	이란, 터키, 사우디, 레바논, 요르단 (5 個國)
	李成佳 大使	레바논, 사우디, 쿠웨이트, 요르단 (5 個國)
1967	李東元 議員	세네갈, 잠비아, 씨에라레온, 라이베리아, 아이보리, 가나 (6 個國)
	崔完福 大使	니제르, 어퍼볼타, 토고, 베닌 (4 個國)
	梁裕燦 巡廻大使	이디오피아, 케냐, 루안다, 콩고 (킨샤사) 가봉, 카메룬, 차드 (7 個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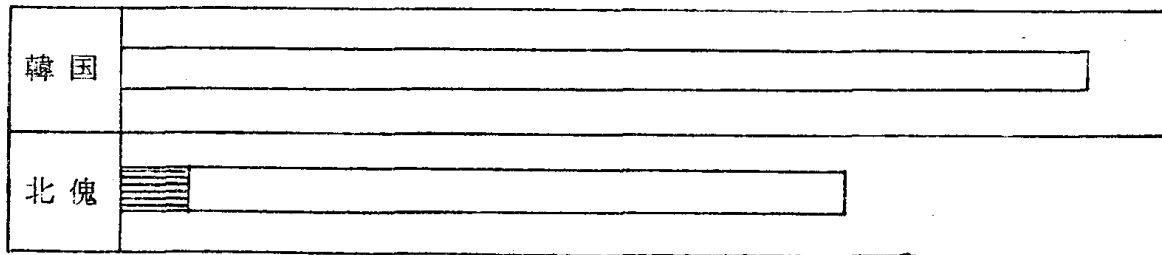
年 度	使 節 団 長	訪 問 国
1968	朴浚圭 国会外務委員長	이란, 레바논,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 리비아, 튀니지아, 모로코, 애급 (9 個国)
	박동진 大使	이디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콩고 (킨샤사), 카메룬, 가봉, 차드 (8 個国)
1969	양유찬 巡廻大使	레바논, 요르단, 쿠웨이트, 애급, 사우디, 리비아, 모로코 (7 個国)
	박동진 大使	이디오피아, 우간다, 루안다, 말라가쉬, 모리셔스 (5 個国)

<北傀의 对中東・阿 巡訪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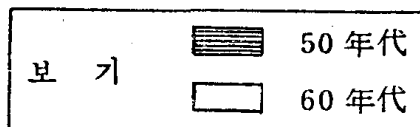
年 度	使 節 団 長	訪 問 国
1965	박 성 철 (외 상)	알제리아
	강 양 우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콩고 (브)
1966	강 양 우 (최고인민위 부위원장)	UAR, 탄자니아, 이락, 시리아
	최 용 건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	탄자니아, 이락

年 度	使 節 団 長	訪 問 国
1967	강 양 옥 (최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탄자니아, 잠비아, 부룬디, 소말 리아, 북예멘
1968		
1969	김 응 (대문협부위원장)	탄자니아, 부룬디, 수단, UAR, 남예멘
	김 경 련 (대외경제위원장)	잠비아, 수단, 차드, 베넌, 니제르 말리, 어퍼볼타, 기니아, 씨에라
	허 담 (부 외 상)	UAR, 시리아, 이락, 수단

< 60年代 南北韓의 對中東・阿外交伸張現況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60年代 南北韓 外交力量伸張現況 >

南 北 区 分	韓 國	北 傀
外 交 関 係	니 제 르 (61) 아이보리코 (61) 스투 차 드 (61) 이스라엘 (62) 어 퍼 블 타 (62) 시에라레온 (62) 말 타 (62) 모 로 코 (62) 요 르 단 (62) 가 봉 (62) 사 우 디 (62) 세 네 갈 (62) 이 란 (62) 카 메 룬 (63) 우 간 다 (63) 자 이 레 (63) 中 央 阿 (63) 이디오피아 (63) 모리타니아 (63) 케 냐 (64) 라이베리아 (64) 말 라 위 (65) 레 소 토 (66) 보츠와나 (68) 튜 니 스 (69) 스와질랜드 (68)	말 리 (60) 우 간 다 (63) 북 예 멘 (63) 애 급 (63) 모리타니아 (64) 콩 고 (64) 가 나 (64) 탄자니아 (65) 시 리 아 (66) 부 룬 디 (67) 소말리아 (67) 이 락 (68) 남 예 멘 (68) 적도기네 (69) 잠 비 아 (69) 수 단 (69) 차 드 (69) 中 央 阿 (69)
計	26	18
領 関 事 係 計	애 급 (61) 케 냐 (63) 2	애급 (61) 이락 (61) 수단 (69) 3
代 表 部	레 바 논 (69)	북 예 멘 (61) 소 말 리 (62) 쿠웨이트 (68) 레 바 논 (68)
計	1	4

南北 区分	韓 国	北 傀
貿易 協 定		모 로 코(61) 말 리(61) 기 니 아(61) 남 예 멘(64) 알제 리 아(64) 콩 고(65) 탄자 니 아(65) 가 나(66) 쿠웨 이 트(67) 모리타니아(67) 수 단(69) 리 비 아(69)
計		12

다. 70年代 南北韓 外交力量

中東·阿 地域에서 南北韓의 外交的 對決은 理念을 紐帶關係의 바탕으로 한 北傀外交가 優位를 維持하였다.

韓國은 73年 10月 第4次中東戰爭後 同年 12月 15日 中東問題에서 아랍圈을 支持하는 聲明을 發表하고 對中東·阿 外交強化의 일환으로 輸出市場 確保와 建設 및 技術勞動力의 進出을 위해 既存公館外에 「카타르」, 「바레인」等에 常駐公館을 擴大하여 理念中心의 政治外交를 脫皮하면서 經濟實利 外交에 力點을 두었다.

또한 78년에는 外務部長官의 最初 中東·阿巡訪과 6個國으로부터 首腦를 招請하여 統一基盤造成을 위한 經濟 文化外交에 注力하고 「모리셔스」, 「오만」等 12個國과 外交를 伸張시켰다.

이는 北傀의 31個國과의 力量擴大에 比해 劣勢를 면치 못한 것이었다.

北傀의 外交伸張은 中共의 UN加入 以後 对阿浸透力量에 便乘하고 反帝鬪爭을 基盤으로한 支援과 4次中東戰을 통한 아랍圈과의 結束을 強化하면서 75年 金日成의 「알제리아」, 「모리타니아」等 最初의 中東·阿地域 巡訪을 展開하는 한편 32個国에서 42名의 首腦級을 大挙 招請하고 親北結束을 담보하는 「親善協調條約」等を 締結하였다.

또한 北傀는 「앙고라」, 「사하라」事態에서 一方的 民族解放鬪爭 支持로 因해 对中東·阿 外交에서 多少 停滯되었으나 「베닌」, 「토고」等の 对韓断交를 誘導하는 成果를 期하였다.

70年代 이地域에서 南北韓 外交特徵은 韓國의 中東進出 擴大와 經濟力量을 基盤으로한 「리비아」, 「나이지리아」, 「적도기니아」, 「기니아」等 親北国家들과 關係를 樹立하고 对「아랍」圈 外交를 보다 積極적으로 推進하였으며 北傀는 对韓優位를 持續키 위해 活氣된 頂上外交를 展開하여 統一路線 支持와 韓國孤立을 試圖하면서 南北韓이 資源確保에 重点을 둔 地帶이었다.

<北傀의 親善協調條約 締結 現況>

国名	締結日	主要内容
카메룬	77.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構成 : 8條 ○ 期間 : 無期限 ○ 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雙方親善關係 發展 - 經濟, 科學技術, 文化分野 協調強化

国名	締結日	主要内容
中央阿	78.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構成：10條 o 期間：20年 o 内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個韓国」反对 - 北傀統一路線 積極 支持 - 經濟, 科学技術 等 全分野 協調 強化 - 反帝, 新・旧植民主義 反对
모잠비크	78.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構成：12條 o 期間：20年 o 内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反帝, 新・旧植民主義 人種主義 反对 - 北傀統一路線 支持 - 全分野 相互 協調 ※ 相互 防衛力 強化(4條)
말라가쉬	78.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構成：10條 o 期間：20年 o 内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分野 相互 協調 - 反帝, 植民, 人種主義 反对 - 北傀統一路線 支持

< 70年代 北傀의 對中東・阿論調 >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고 새생활을 창조하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날 식민지대륙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대륙이 오늘은 자유와 해방의 광명으로 빛나는 새로운 대륙으로 전변되어 가고 있다」 (77.5 社会科学出版, 新興勢力은 反帝力量)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유대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우고 있는 모든 아랍인민들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견결히 지지 성원할 것이다」 (72.9.13 外務部代弁人 聲明)

「우리는 남아프리카와 로데시아 인종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인접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과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전선국가들의 견결한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아프리카의 완전해방과 통일을 위한 전제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

(79.3.20 부룬디大統領 歡迎時, 金日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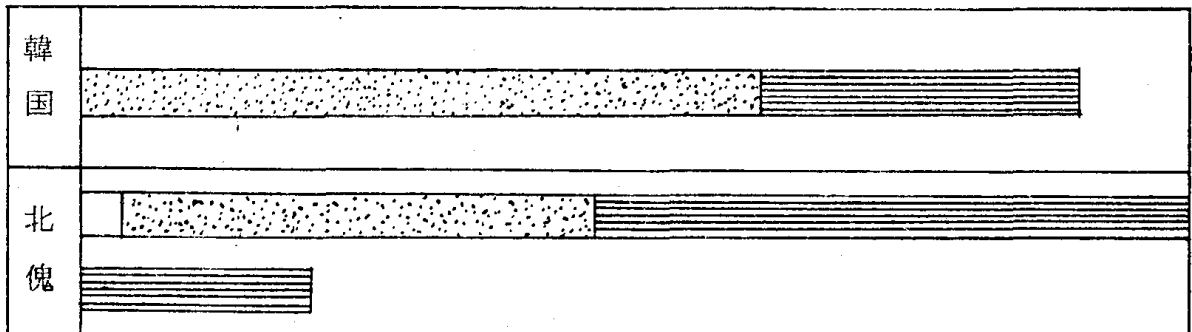
< 70年代 南北韓 首腦級 招請外交 >

南 北	国 名	日 時	招 請 者
韓 国	스 와 질 랜 드	71	「드라미니」 首相
	모 리 셔 스	73	「림굴람」 "
	가 봉	75	「봉 고」 大統領
	세 이 셸	75	「만 참」 首 相
	레 소 토	76	「조나단」 "
	지 부 티	78	「카 밀」 "
	소 말 리 아	70. 6	革命委員会 副委員長
	"	72. 5	" 委員長
"	77. 6	「아부커」 副統領	
北 傀	시 에 라 레 은	71. 7	「코로마」 "
	잠 비 아	72. 9	「마인자」 "
	"	73.10	「에이 더 카라마」 副統領
	"	75. 9	「크레이 울드」 "
	콩 고 (브)	73. 8	「느그아비」 大統領
	"	78. 5	「오방고」 "
	애 급	73. 9	「샤페이」 副統領
	알 제 리 아	74. 3	「부매더아」 大統領
	세 네 갈	74. 5	「생고르」 "
	적 도 기 네	74. 8	「미겔 에에게 누꾸모」 副統領
	"	77. 9	「마시아스」 大統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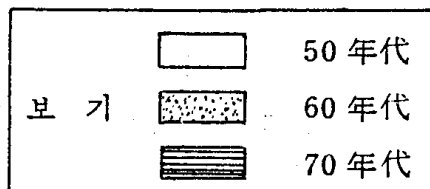
南 北	国 名	日 時	招 請 者
北 傀	토 고	74. 9	「에야데마」大統領
	모 리 타 니 아	74. 9	「다다흐」 "
	시 리 아	74. 9	「아사드」 "
	남 에 멘	74.11	「루바이 알리」理事会委員長
	"	78. 4	「모하메드」總理
	자 러 래	74.12	「모부투」 "
	모 잠 비 크	75. 3	「모이셀」解放戰線委員長
	"	78. 5	「 " 」大統領
	이 락	75. 7	「마루프」副統領
	산토메프린시페	75.12	「다·코스타」大統領
	"	77. 8	「아모린」總理
	말 리	76. 5	「크라오레」國家首班
	말 라 가 쉬	76. 6	「라취라카」大統領
	"	78. 9	「 " 」 "
	베 닌	76. 7	「케레쿠」 "
	보 츠 와 나	76. 8	「카 마」 "
	탄 자 니 아	76.12	「아브드 줌베」第1副統領
	"	78. 9	總 理
	북 에 멘	76.12	「함디」大統領
	가 봉	77.12	「봉고」 "
중 앙 아	78. 4	「보카사」皇帝1世	

南 北	国 名	日 時	招 請 者
北 傀	세 이 셸	78. 5	「레 네」大統領
	루 완 다	78. 6	「쥬베날」 "
	리 비 아	78. 8	人民總書記
	부 룬 다	79. 3	「바가자」大統領
	기 네	79.10	「세쿠투레」 "
	기 네 비 사 우	79.11	「까브랄」國家理事會 議長

< 70 年代 南北韓의 對中東・阿外交伸張現況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70年代 南北韓 外交伸張 現況 >

区分 南 北	韓 國	北 韓
外 交 関 係	모리셔스 (71) 오 만 (74)	시에라레온 (71), 카메룬 (72)
	카 타 르 (74) 바 레 인 (76)	루 완 다 (72) 우 간 다 (72)
	세 이 셸 (76) 수 단 (77)	세 네 갈 (72) 말 타 (72)
	가 나 (77) 지 브 티 (77)	어 퍼 볼 타 (72) 자 이 레 (72)
	기 네 (78) 코 모 로 (79)	토 고 (73) 베 닌 (73)
	쿠웨이트 (79) 적도기네 (79)	감 비 아 (73) 모리셔스 (73)
		이 란 (73) 리 비 아 (74)
		가 봉 (74) 기네비사우 (74)
		요 르 단 (74) 니 제 르 (74)
		보츠와나 (74) 케냐 (75)
	에치오피아 (75) 모잠비크 (75)	
	라이베리아 (75) 튀니시아 (75)	
	산토메프린시페 (75)	
	케이프베르데 (75) 코 모 로 (75)	
	앙 고 라 (75) 나이제리아 (76)	
	세 이 셸 (76)	
計	12	31
領 事	리 비 아 (78)	모리셔스 (71)
計	1	1
代表部		리 비 아 (71)
計		1

Ⅲ. 南北韓의 國際機構內 力量關係

1. 1950 年代

48年 12月 韓國은 第3次UN總회에 代表團(장면)派遣을 最初로 對UN外交의 嚆矢를 이루면서 同年 12月12日 韓國政府가 韓半島에서 唯一合法政府임을 承認받았다.

50年 6月 27日 安全保障理事회의 決議에 依한 16個国 參戰으로 韓國은 UN의 力量과 惠沢을 받은 最初 國家이었으며 59年 第14次 總會時까지 每年 韓國代表가 单独招請되어 統韓決議案이 可決되었다.

49年 8月 世界保健機構(WHO)를 위시한 9個UN專門機構와 유엔兒童基金(UNICEF)等 3個直屬機構에 加入하여 UN內에서 力量을 擴大시키는 한편 政府間 國際機構인 國際獸疫局(IOE)外 8個機構에 加入하였다.

北傀는 49年 2月과 52年 1月 유엔加入申請書를 提出하고 韓國政府承認 및 16個国 韓國參戰 決議等에 對해 50年 6月 27日 政府聲明을 通해서 「北傀參加없는 討議決定을 不法」이라 主張하면서 54年 4月 有関国会議인 「제네바」政治會談等으로 UN의 韓國問題 排除를 企圖하였다.

期間中 南北韓間의 國際機構內 力量은 韓國이 美國을 主軸으로 한 西方圈의 多數影響에 依해 UN에서 活動이 活潑하였으며 UN산하 國際機構 加入이 積極 實現되었으나 北傀는 國際民主女性聯盟(WID

V) 等 社会主義 国家들이 主軸이 된 統一戰線機構에 만 加入하였다.

< 50 年代 韓國, UN 傘下機構加入現況 >

区 分	機 構 名	加 入 日
直 屬 機 構	UNICEF (兒童基金)	50. 3. 25
	UNCTAD (通商開發會議)	65. 1. 8
	UNDP (開發計劃)	59. 1. 1
UN 傘下 專 門 機 構	UPU (萬國郵便聯合)	49.12
	WHO (世界保健機構)	46. 6
	FAO (食糧農業機構)	49.11
	UNESCO (教育科學文化機構)	50. 6
	ITU (國際電氣通信聯合)	52. 6.30
	ICAO (國際民間航空機構)	52.12.11
	IMF (國際通貨基金)	55. 8.26
	IBRO (國際復興開發銀行)	"
	WMD (世界氣象機構)	56. 3.16
政 府 間 國 際 機 構	IOE (國際獸疫局)	53.11.18
	IWC (國際小麥理事會)	53.12.31
	ICAC (國際綿花諮問委員會)	54. 9. 5
	IHO (國際水路機構)	57. 1. 1
	IAEA (國際原子力機構)	57. 8. 8
	WTO (世界觀光機構)	57.11. 8

区 分	機 構 名	加 入 日
政府間	I BWM (國際度量衡局)	59. 7.28
國際機構	I CMMP (國際軍隊醫藥會)	54.10. 4
	C I S M (國際軍人體育理事會)	57. 4.12

< 50 年代 北傀의 對UN論調 >

「어느민족에 관한 문제든지 반드시 당해민족의 법적대표자들의 참석하에 심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할 자는 없으리라고 굳게 믿는다」

(48.10.7 外相 박헌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만일 유엔에서 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의 참가없이 조선문제에 관한 어떠한 결정이든지 채택된 경우에는 그것을 무효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을 재차 성명한다」

(49.10.4 外務相 朴憲永)

「일방적인 기만적 보도에 의하여 작성된 미국인들의 자기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유엔의 헌장에 모순되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없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위대한 두나라 즉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없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50.7.1 外相 朴憲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정치회의 문제에 관한 쌍
방회담을 재개하는데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주은래 외교부장의 54.1.9
일부 성명이 현하 조성된 조선문제의 정당한 해결과 극동 및 전
세계 긴장상태를 완성함에 있어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하고
이를 전적으로 찬동한다」 (54.1.10 外務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의 일방적 유엔가입이 허
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견결히 반
대한다」 (57.1.24 外相 南日)

2. 1960年

60年代初 「나이지리아」, 「우간다」, 「가봉」등을 위시한 31
個국의 新生국이 UN에 大挙 加入하면서 그勢力 様相은 變化를
가져왔고 新生會員국들의 韓國問題에 對한 새로운 接近 方法을
摸索하는 氣運과 함께 15次總會에서 節次問題에 關한 南北韓同時
招請이 提出되었으며 16次에서는 南北韓 無條件同時招請案이 提起
되는 등 北傀의 對UN活動이 活氣된 様相을 보였다.

65年 韓國은 「UN決議를 土台한 自由와 民主主義 保障方法을
通한 統一達成」이라는 基本方針을 樹立하고 20次總會에서 韓國代
表 单独招請案을 觀철시켰다.

66年 北傀의 自主路線 宣言은 韓半島問題에 對한 UN排除와
反西方的 新會員국들의 年例的 討議로 因한 慢性的 氣運에 迎合
할 수 있었으며 이와함께 UN은 共產側 政治宣傳의 主戰場이

되었다.

韓國은 68年 韓半島問題의 UN自動上程方式에서 裁量上程方式으로 轉換하고 對UN戰略에 伸縮性を 期하면서 麻藥委員會(CND), 通商開發會議(UNCTAD)等 4個UN直屬機構와 國家間海事協議機構(IMCO), 國際開發協會(IDA) 專門機構 및 17個 政府間 國際機構에 加入을 擴大시키고 亞細亞生產性機構(APO), 亞·阿農村再建機構(AALLO)等에서는 主導的 役割을 担当하였다.

60年代 UN을 中心한 南北韓의 外交는 韓國이 UN 및 政府間 國際機構에서 北傀를 圧倒하면서 裁量上程方式에 依한 機動性を 보였고 北傀는 非同盟國들의 加入과 韓國問題에 對한 소극성에 便乘하여 韓國의 唯一合法性 否認과 美軍駐屯의 名分褪色 및 UN干与를 배제하는 等으로 對UN外交에 보다 活氣를 띤 期間이었다.

< 60年代 韓國, 國際機構加入現況 >

區 分	加 入 日	機 構 名
UN傘下 直屬機構	63. 1. 1	o UN麻藥委員會(CND)
	65. 1. 8	o UN通商開發會議(UNCTAD)
	67. 1. 1	o UN工業開發機構(UNIDO)
	68. 1. 1	o UN資本開發基金(UNCDF)
UN傘下 專門機構	61. 4.10	o 國家間 海事協議機構(IMCO)
	61. 5.18	o 國際開發協會(IDA)
	64. 3.16	o 國際金融公司(IFC)

区 分	加 入 日	機 構 名
政府間 国際機構	60. 9	o 国際常設航海協会 (PIANC)
	61. 6	o 亜細亜・太平洋理事会 (ASPAC)
	61. 6	o " 生産性機構 (APO)
	62. 4	o " 太平洋郵便聯合 (AOPU)
	62. 9	o 国際燈台協会 (IALA)
	62.11	o 콜롬보計劃 (Colombo plan)
	63. 2	o 亜・阿農村再建機構 (AALLO)
	63. 6	o 世界食糧計劃 (WFP)
	63. 8	o 国際電気技術委 (IEC)
	63. 8	o 国際標準化機構 (ISO)
	64.10	o 国際刑事警察機構 (ICPO)
	65.11	o 国際最高会計検査機関機構 (INTOSAI)
	66.12	o 亜細亜開発銀行 (ADB)
	67. 4	o 関税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GATT)
	68. 7	o 関税協会理事会 (CCC)
	68. 7	o 로마센타 (RC)
68. 9	o 国際行政自動資料処理委員会 (ICA)	

< 60年代 北傀의 國際機構論調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유엔의 간판하에서 조선인민에게 갖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즉각 철거하여야 하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 침략정책은 즉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60.10.1 政府声明)

「조선통일의 문제는 조선인민이 자기의 소원대로 임의의 국가사회제도를 선택하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내부적 문제이다.

유엔이나 그어떤기관 어떤나라도 이에 간섭하지 말아야하며 또 간섭할 수도 없다.

유엔이 그의 헌장에 명백히 규정된 원칙과 그 규범에 충실하게 행동하려거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한 바와같이 유엔에서 반복논의하는 것 만큼 유엔의 위신만 훼손시킨다」

(61.3.6 政府備忘錄)

「유엔은 이이상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행위에 이용되지 말아야하며 조선문제에서 손을 떼야한다」

(63.12.15 外務省代弁人声明)

「유엔은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채택한 유엔군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조선에 파견한데 대한 비법적 결정을 철회하며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7.8.21 政府声明)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를 그토의에 참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유엔이 지금까지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채택한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 결의들을 취소하고 유엔에서의 조선문제의 비밀적 토의를 영원히 끝장내도록 해야한다」 (69.10.8 政府備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는 항상 유엔헌장과 그의 목적을 존중하여 왔으며 또 존중하고 있다.

만약 유엔이 진정으로 자기의 헌장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면 우리 대표를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에 무조건 참가시켜야 한다」

(69.10.5 外務省声明)

3. 1970年代

71年 中共의 UN加入과 73年 第4次 非同盟頂上會議에서 54個国 會員국이 74個国으로 把大해진 非同盟勢力은 UN内에서 大勢를 이루면서 勢力版圖가 變化되었다.

韓國은 71年 南北赤十字 豫備會談을 背景으로한 裁量上程方式을 活用하고 韓國問題 討議延期案으로 對UN戰略을 세우면서 同案을 貫徹시켰다.

72年 대두한 「알제案」은 共產側 決議案 名稱을 代身한 것으로 北傀의 左傾非同盟圈과의 結束을 나타낸 것으로 對UN戰略의 一面을 보였다.

北傀外交를 代弁할 수 있는 「알제리아」와 같은 親北國家를 確保한 것은 北傀非同盟外交의 成果이었다.

73年 北傀는 UN傘下 專門機構인 WHO에 加入하므로써 同年 7月에 뉴욕에 駐UN代表부와 8月 제네바에 歐洲代表부를 各各 開設하고 74年 政府間 國際機構인 IAEA(國際原子力 機構) 등 2個 政府間 國際機構에 加入하여 總13個 機構에서 UN內 力量을 伸張시켰다.

第28次 總會에는 最初로 外交部 副部長인李宗木이 韓國問題討議에 參加하였으며 70年代 南北韓外交는 韓國이 「6.23平和統一外交政策」과 北傀의 所謂 「祖國統一5大方針」이 激突한 것으로 南北韓의 争点은 UN同時加入과 駐韓UN軍 撤収問題로 圧縮되면서 對立되었다.

UNCURK解体에 關한 合意聲明으로 23年間の 韓國內 活動이 終結되었다.

74年 北傀는 對美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하고 위장평화 攻勢를 展開하면서 北傀의 非同盟勢力을 背景으로하여 第29次 總會에 韓國問題를 提起시켰으나 西方側 決議案이 可決된 것은 韓國外交의 成果이었다.

第30次 UN總會에서 南北韓對決은 相反된 決議案이 同時通過되므로써 韓國問題에 對한 UN의 能力限界를 시사하면서 韓半島平和와 統一問題는 當事者間の 解決이 우선이라는 時代的 感각을 반영하였다.

第32次에서 第34次期間 韓國問題는 討議를 止揚하였으나 北傀의

对國際機構活動은 크게 向上되었다.

社會主義 國家들의 블럭協力體에 局限하였던 北傀는 各種 體育 分野 機構에 加入하면서 總 146個 民間機構에서 活動을 展開하였다.

76年 11月 北傀에 UNESCO代表部, 78年 1月 伊太利에 FAO代表部の 新設은 國際機構內에서 北傀의 力量提高는 勿論 西歐地域 浸透를 위한 橋頭堡役割을 遂行케 하였고 79年 6月 유엔開發計劃(UNDP)으로부터의 開發資金 獲得은 先進技術과 資本을 導入하는데 교량역할이 되고 있다는 點에서 注目되고 있다.

70年代中 南北韓의 國際機構에서 力量關係는 对UN기피현상을 보였던 北傀가 共產側 決議案을 通過시켜 UN內에서 南北韓이 对等한 位置를 確保한 것이었고 各種 國際機構에 加入하여 對外經濟 協力을 摸索하고 機構內에서 韓國과 政治 經濟的 正面对決을 試圖한 것이었다.

< 70年代 韓國, 國際機構加入現況 >

区 分	加 入 日	機 構 名
UN傘下 直屬機構	72. 12	UN人間環境會議(UNCHE)
UN傘下 專門機構	78. 1 79. 3	國際農業開發基金(IFAD) 世界知的財産機構(WIPO)
政府間 國際機構	70. 8 71. 4	太平洋참치保存委員會(ICCAT) 亞細亞채소開發研究센터(AVBDC)

区 分	加 入 日	機 構 名
	72. 2	国際電気通信衛星機構 (INTELSAT)
	72. 8	国際사탕機構 (ISO)
	74. 3	亜・阿法律諮問委員会 (AALCC)
	75.	国際協力欧洲센터 (CECI)
	76.	国際港湾協会 (IAPH)
	78.	亜細亜放送開発研究院 (AIBD)
	78. 6	国際法定計量機構 (IOLM)
	79.12	国際外交아카데미 (IDA)

< 70年代 北傀, 国際機構加入現況 >

区 分	加 入 日	機 構 名
UN傘下	73. 7	UN通商開発会議 (UNCTAD)
直囑機構	79. 6	UN開発計劃 (UNDP)
UN傘下	73. 5	世界保健機構 (WHO)
專門機構	74. 5	萬国郵便聯合 (UPU)
	74. 8	世界知的財産機構 (WIPO)
	74.10	UN教育科学文化機構 (UNESCO)
	75. 5	世界気象機構 (WMO)
	75. 7	国際電気通信聯合 (ITU)
	77. 9	国際民間航空機構 (ICAO)
	77.11	UN食糧農業機構 (FAO)

区 分	加 入 日	機 構 名
政府間機構	74. 9	國際原子力機構 (IAEA)
	74.10	國際標準化機構 (ISO)
	74. 3	亞・阿法律諮問委員會 (AALCC)
	74. 5	國際法定計量機構 (IOLM)

< 南北韓의 民間國際機構加入 現況 >

- 韓 国 -

区分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民 間 機 構	世界反共聯盟 (WACL)	67. 9.25	서 울
	國際議員聯盟 (IPU)	64. 8	제 네 바
	亞州議員聯盟 (APU)	65.11.30	創 立
	國際올림픽委員會 (IOC)	47. 7	스위스 (로잔)
	亞細亞競技聯盟 (AGF)	49. 2	
	世界女性団体協議會	60	파 리
	太平洋地域觀光協會 (PATA)	56	샌프란시스코
	아스팍社會文化센터		서 울
	亞細亞民族反共聯盟 (APACL)		사 이 곤
	亞細亞商工會議所聯合會 (CACCI)	65. 2	마 닐 라
	赤十字社聯盟 (LORCS)		
國際赤十字委員會 (ICRC)		제 네 바	

区分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民 間 機 構	國際自由勞動組合聯盟 (ICFTU)	53.	브 루 셀
	國際刑事警察機構 (INTERPOL)	57.10	파 리
	世界教聯團體聯合會(WCOTP)	51.7	워 싱 톤
	世界大學總長會議(IAUP)	64.6.15	루더포드(美)
	世界보이스카웃(boy Scouts World Bureau)	53.1.31	제 네 바
	國際技能올림픽大會(IVTC)	60.10	마드리드
	世界在鄉軍人聯盟(WVF)	51.5	파 리
	國際青年會議所(JCI)	54.3	프로리다주
	國際Pen Club(PEN)	54.10.3	각국에 본부를 둠
	國際新聞人協會(IPI)		취 리 히
	國際저널리스트聯盟(IFJ)	66.	브 루 셀
	亜細亜新聞財團	68.	
	集團殺害罪의 防止와 処罰에 關한 協約	50.10.14	
	國際植物保護協約	53.12.8	
	亜細亜通信機構(OANA)	61.12	방 곡
	亜細亜放送聯盟(ABU)		東京NHK
	國際通信衛星機構(Intersat)	67.2.24	워 싱 톤
	國際出版協會(IPA)	57.	제 네 바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	55.	에딘바라(英)

区分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民 間 機 構	国際大学스포츠聯盟 (FISU)	57. 8	
	国際軍人体育会 (CFSM)	56.	브 루 셸
	東部亜細亜観光協會 (EATA)	66. 3	東 京
	国際로타리클럽 (IRC)	61. 1	에 반스톤 (美国)
	국제라이언스클럽協會 (IALC)	59.	시 카 고
	국제聯合再建團	58. 9.25	서 명
	世界國際聯合協會聯盟 (WFUNA)	52. 9	제 네 바
	국제聯合特別基金	61. 5.15	서 명
	국제聯合技術員會	63. 5.18	
	亜細亜放送人會議 (ABC)		東 京
	亜細亜凶書館協會聯盟 (AFLA)		東 京
	亜・阿經濟協力機構 (AFRASEC)		카 이 로
	文化自由會議 (CCF)		파 리
	國際航空聯盟 (FAI)		파 리
	國際民主弁護士協會 (IADL)		브 루 셸
	國際아마無電聯盟 (AIRU)		웨스트하트포드
	國際航空運輸協會 (IATA)		몬트리올
	國際弁護士協會 (IBA)		뉴 욕
國際商業會議所 (ICC)		파 리	

区 分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民 間 機 構	國際著作権協会 (ICS)		함부르크
	國際科学聯盟評議會 (ICSU)		로 마
	國際女性評議會 (ICW)		파 리
	國際映画協会 (IFFA)		파 리
	國際図書館協会聯盟 (IFLA)	55. 9. 8	헤 그
	國際아마레스링聯盟 (FILA)	1948.	로잔 (스위스)
	國際卓球聯盟 (ITTF)	1950.3	글렘 (영국)
	國際테니스聯盟 (ILTF)	1950.	런 던
	國際배드민턴聯盟 (IBF)	1962.	"
	國際軟式野球聯盟 (ISBF)	1967.	오크라호마 (美国)
	國際劍道聯盟 (IKF)	1970.	東 京
	亞細亞蹴球聯盟 (AFC)	1954.	페 남 (말레이시아)
	亞細亞籠球聯盟 (ABC)	1960.	서 울
	亞細亞体操聯盟 (AGF)	1965.	東 京
	亞細亞사이클聯盟 (ACF)	1962.	싱가포르
	亞細亞柔道聯盟 (JFA)	1956.5	東 京
	亞細亞野球聯盟 (BFA)	1954.	마 닐 라
	亞細亞軟式庭球聯盟 (ASTA)	1955.	輪 番 制
	亞細亞排球聯盟 (AVF)	1959.	아시안게임개최국
	亞細亞복싱聯盟 (FAAB)	1948.	카라치 (파키스탄)
亞細亞테니스聯盟 (ALTF)	1964.	홍 콩	

区 分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民 間 機 構	亞細亞力道聯盟 (AWF)	1958.	테헤란 (이란)
	亞細亞射擊聯盟 (ASF)	1967.	선수권대회개최국
	亞細亞럭비풋보올聯盟 (ARFU)	1969.	홍 콩
	亞細亞배드민턴聯盟 (ABC)	1958.	뭄베이 (인도)
	亞細亞卓球聯盟 (TTFA)	1952.	싱가포르
	國際排球聯盟	1957.	
	國際射擊聯盟	1956.10.24	
	國際法協會 (ILA)	64. 6	런 던
	國際自然 및 天然資源保存聯盟 (ICNN)	69. 5	물게스 (서서)
	亞細亞大洋洲医学協會聯盟 (CMAAO)	50. 4	마 닐 라
	NOC 常設聯合 (PGA/NOC)	65.	로 마
	國際大學스포츠聯盟 (FISU)	67. 8	벨 지 움
	國際軍人体育會理事會 (CISM)	1957.	"
	國際弓術聯盟 (FITA)	1963	와케필트 (英國)
	國際陸上競技聯盟 (IAAF)	1947.6.10	런 던
	國際籠球聯盟 (FIBA)	1948	윈 헨
	國際아마추어복싱聯盟 (AIBA)	1947	런 던
	國際氷上聯盟	48.	
	國際蹴球聯盟	48. 7	
	國際体操競技聯盟等	59.10.6	

- 北 傀 -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國際民主女性聯盟 (WIDF)	46.10.14	베 르 린
世界民主青年聯盟 (WFDY)	47. 6	부다페스트
世界職業聯盟 (WETU)	47. 5.12	프 라 하
建物木材建設資材工業勞組聯盟	47. 7.14	헬 싱 키
國際鉍業勞動組合聯盟 (MTUI)	47. 7.14	파 리
國際學生聯盟 (IUS)	48. 6. 7	부다페스트
世界敎職者團體聯盟	49. 3	파 리
世界平和理事會	49. 4	스코초롬
國際金屬工業 및 機械工業勞動者職業同盟	49. 6	프 라 하
國際紡織被服, 皮革勞動組合	49. 6.20	"
國際食品, 담배, 飲料産業, 호텔, 카페 레스토랑 勤勞組合聯盟	49.11.13	쏘 피 아
國際農業·林業勤勞者組合聯盟	49.12. 5	프 라 하
國際記者聯盟	50. 1	"
國際石油化學工業部分勞動者組合	50. 3.12	부다페스트
亜細亞·太平洋地域平和連絡委員會	52.10.13	北 京
國際라디오, 텔레비존機構	54.11.29	프 라 하
國際運輸港灣, 漁業勤勞者組合聯盟	55. 3.12	"
國際民主法律家協會	55. 4.23	브 루 셀
國際公務員, 從業員勞動組合	55. 4.15	베 르 린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國際母性常設委員會 (PICM)	55. 7	베 르 린
國際建築家聯盟 (IUA)	55. 7	파 리
國際設計士組合	55. 7.11	
社會主義國家公衆衛生閣僚會議		
國際圖書館聯盟	55. 9	런 던
社會主義國家觀光機構會議		
社會主義國家聽覺機構代表者會議		
社會主義國家測地學會		
國際植物保護禁域會議		
社會主義國家民間航空機構代表者會議		
社會主義國家財政閣僚會議		
社會主義國家科學院長會議		
社會主義國家保險機構代表者會議		
社會主義國家體育機構代表者會議		
社會主義國家規格機構代表者會議	56. 5	프 라 하
赤十字聯盟	56. 5	제 네 바
아시아격권 (태권) 聯盟		
太平洋西部漁業研究委員會	56. 6	北 京
國家射擊協會 (ISU)	56.10	바이스바덴
社會主義國家農業 및 林業部門 科學 事業造成委員會	56.10	소 피 아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國際아마추어籠球聯盟	56.12	뮌 헨
國際排球聯盟 (IVBF)	56.12	파 리
聯合原子核研究所	56.12	드 부 나
아시아 자전거聯盟	56.12	
亞細亞籠球聯盟	56.12	서 울
世界科學者聯盟	56.12	런 던
國際卓球聯盟	57. 3	"
通信協調機構	57. 4.25	비 엔 나
國際아마추어拳鬪聯盟	57. 4. 7	런 던
國際蹴球聯盟	57. 6	주 리 히
國際水上聯盟	57. 6. 8	다 보 스
國際地球物理學年度特設委員會	57. 7	파 리
國際航空聯盟 (IAF)	57. 9	"
亞細亞・「아프리카」人民團結機構	57.12	카 이 로
國際人形劇聯盟	57.12	프 라 하
社會主義國家通信協調機構	57.12	모스크바
親善軍隊體育委員會	58. 3	"
國際蹴球協會聯盟	58. 6. 5	주 리 히
國際體操聯盟	58. 7. 5	베오그라드
國際아마추어레슬링聯盟	58. 7	파 리
國際言論人機構 (IOJ)	58. 8.17	프 라 하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亜細亜・아프리카 作家大会	58.10	콜 롬 보
亜細亜・ " 法律家学者協會		
亜細亜・ " 小兒科大会		
國際科学同聯理事会	59. 4. 1	런 던
世界平和運動에스페란드協會	59. 5	폴덴 (오저리)
國際商業일꾼職業聯盟	59. 6	프 라 하
國際力技聯盟	59. 6.28	파 리
國際自轉車聯盟	60. 3. 5	"
亜細亜・「아프리카」經濟協力機構	60. 5	카 이 로
國際結核同盟	60. 9. 8	파 리
國際映画「알히브」同盟	60.10	"
國際弓術聯盟	61. 8	런 던
國際天文学同盟 (IALU)	61. 8	그리니치천문대
國際科学映画協會	61. 9	파 리
國際映画攝影技術協會聯盟	61. 9	"
社会主義国家社会保障스포츠代表者會議		
國際올림픽위원회 (IOC)	62. 2	로 잔 르
國際아마추어陸上聯盟	62. 9	런 던
亜細亜經濟세미나	62.11	콜 롬 보
亜細亜經濟局		
가네포聯盟	63. 2. 5	자 카 르 타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亜細亜・「아프리카」記者協會	63. 4	자카르타
國際規格化機構	63. 6	제네바
國際하키競技聯盟	63. 7.14	브르셀
國際氷上하키聯盟	63. 8	런던
亜細亜 및 太平洋地域港湾労働者大会	63.10	"
國際電氣工学委員會	63.10	제네바
國際自然 및 資源保護同盟	63.11.21	브르셀
國際電氣技術委員會	63.11.21	
國際요트競技聯盟	63.11.30	런던
國際아마추어水泳聯盟	63.12	東京
亜細亜排球聯盟	64.	"
國際스키協會	64. 1.30	스위스
國際카누聯盟	64. 2	스톡홀름
國際漕艇聯盟	64. 4	스위스
亜細亜産業保健大会	64. 5	자카르타
國際金屬, 機械工業労働組合聯盟	64. 6.29	프라하
國際柔道聯盟	64. 7	東京
國際土壤学協會	64. 8	암스텔담
亜細亜・「아프리카」保險・再保險聯盟	64. 9	카이로
亜細亜・「아프리카」医学者大会	64.10	"
亜細亜・「베이징」卓球招請競技連絡委員會	64.10	北京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國際郵票蒐集家聯盟	64.10	
國際數學者同盟	64.12	
國際養蜂業者機構		
「垂細亞」大陸 「카네포」委員會		
垂細亞柔道聯盟	65.	도 ㅈ
國際大學生聯盟 (FISU)	65. 8. 1	루벨 (벨지움)
新生國力道競技連絡委員會		
垂細亞・「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人民團結機構	66. 1	아 바 나
國際地理學同聯	66. 7.11	
國際地理學聯盟		
世界家禽科學協會	66. 8	
世界家禽學協會		
國際水力學研究協會	66. 9.13	
國際水力研究會		
垂細亞・「아프리카」住宅機構		
國際測地 및 地球物理學聯盟	67.10	취 리 히
新興勢力連絡力技競技委員會	69. 5.16	
國際仏教徒會		
國際歷史科學委員會	70. 8.20	모스크바
國際圖書館協會聯盟	70. 9	에딘바라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船舶技術調査와 급수계정분야에서의 協調에 関한 1961年 「바르샤 바」協約機構	70.11	
國際鉦業大会組織委員會	71. 5.19	
亜細亜卓球聯盟	72.	中 共
北韓 IPU會員国으로 13次理事会때 부터 加入	73. 4.23	제 네 바
國際헨드볼競技聯盟	74.10	
亜細亜柔道總會		
國際鐵道体育聯盟	73. 9.21	
亜細亜競技聯盟	74. 2.14	
國際法制計量機構	74. 5. 9	과 리
國際兒童 및 靑少年委員會		
亜細亜放送聯盟		
國際필림라이브러리同盟		
亜細亜陸上聯盟	74.	싱 가 폴
亜細亜蹴球聯盟	74.	馬 来
亜細亜싸이클聯盟	74.	싱 가 폴
亜細亜복싱聯盟	74.	테 헤 란
亜細亜力道聯盟	74.	"
亜細亜射擊聯盟	74.	서 울

機 構 名	加 入 日	本 部 所 在
亞細亞體操聯盟	74.	東 京
亞細亞펜싱聯盟	74.	대 해 란
亞細亞베드민턴聯盟	74.	쿠알라룸푸
亞細亞弓道聯盟	78.	칼 카 타

< 第 30 次 U N 總 會 結 果 >

区 分	西 方 側	共 産 側
決 議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的 統一促進을 위해 南北韓이 對話를 繼續할 것을 促求 ○ 休戰協定の 持續과 UNC 의 解体가 可能토록 直接關係 当事者들이 協議 할 것을 勸奨해 주기를 希望 ○ 76.1.1을 期해 UNC 가 解体될 수 있도록 上記 協議가 完決되고 休戰協 定維持代案이 마련되기를 希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C 解体 및 모든 駐 韓外軍 撤去 ○ 休戰協定の 平和的協定에 로의 代替를 休戰協定の 實質的 当事者에게 要請 ○ 武力增強中止, 雙方軍隊의 對等한 水準 減縮과 武 裝衝突防止와 武力行使를 하지 않을 것을 保障하 는 實質的 措置를 取할 것

表決結果	本會議	賛成	反対	棄權	缺席	総数	本會議	賛成	反対	棄權	缺席	総数
		59	51	29	4	142		54	43	42	4	142
	政治委	59	51	29	4	142	政治委	51	38	50	3	142

< 70年代 北傀, 对国际機構論調 >

「남은 국제경제 질서를 짓부시기 위한 특징은 유엔 기타 국제 무대들에서도 날로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원료 및 개발문제에 관한 UN총회 특별위원회는 남은 국제경제 질서를 반대하는 불려불가담 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된다」

「1976년에 있는 유엔무역개발회의의 결의들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불려불가담 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이룩한 새로운 커다란 승리이다」

(77年5月 社会科学出版, 新興勢力은 反帝革命力量)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달한데 대한 결의안이 절대적인 찬성을 받아 채택된 것은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조국통일 방침과 대외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빛나는 과시로 된다」

(75.11.22 勞動新聞論說)

「 제 30 차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조국통일 방침을 반영한 43개국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표의 찬성으로 가결 된 것은 30년동안 해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제멋대로 조선문제에 대한 비법적인 지시를 조작해 내던 유엔에서의 낡은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처음으로 조선문제에 대한 공정한 결의를 채택한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유엔역사에서의 일대 전환이 아닐 수 없다」

(75.11.22 勞動新聞論說)

「 우리의 형제적 인방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지위가 더욱 높아진 것은 지난해 세계정치 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변의 하나이다」

(72年 新年辭)

「 미제와 남조선 위정자들의 유엔에 대한 전술은 철저히 침략적이며 반인민적인 것이다」

(72.9.17 日本毎日新聞記者와 對話)

「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표결결과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당의 자주로선과 자주적인 조국평화 통일방침 및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온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세계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이다」

(75.11.20 勞動新聞社說)

IV. 結 論

南北韓의 非同盟圈을 위한 第3世界圈에 對한 外交伸張은 獨立을 앞둔 小數의 植民地가 殘存해 있으나 量的 面에서는 그 限界가 있다.

中立圈外交가 非同盟 또는 第3世界外交로 變貌된 오늘 理念아닌 實利為主를 바탕으로 삼아야하는 南北韓外交는 優劣의 隔差에서 對決로 壓縮되고 있다.

50年代에서 60年代에 이르기까지 北傀外交 不在를 論하였던 韓國의 第3世界外交는 89 : 81 (韓國 : 北傀)로 對等한 位置에서 角逐戰을 展開해야 할 不可避한 狀況에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北傀의 第3世界 外交가 韓國의 第3世界 外交를 追從할 수 있던 時期는 70年代로 그들 外交의 伸張을 國際情勢의 激流로 因한 自得으로만 돌려질 수는 없다.

國際情勢의 多邊化와 緊張緩和는 韓國과 北傀에 同時에 그影響이 波及되었음을 認定하나 이는 副次的인 問題이며 이를 어떻게 對應하느냐 하는 問題로서 韓國과 北傀自身の 外交政策이 決定的 要因은 勿論이다.

南北對話는 戰爭抑制와 平和統一이라는 大命題를 實踐키 위한 劃期的 狀況展開 이었으나 第3世界圈에 投影된 對話 自体가 南北韓 實體를 同等視하게 하므로써 韓國의 唯一合法性을 糊塗시키고 60年代 期間까지 構築되어온 韓國外交의 優位를 北傀와 對等하게 格

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北傀가 「社会主義 国家들의 全一休」로 規定하고 있는 「社会主義陣營」概念을 脱皮하면서 「自主」名分の 政策을 推進하고 있는 것은 第3世界圈에 對한 外交的 比重을 어느때보다 높게 策定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韓國이 外面할 수 없는 非同盟圈에 對해 北傀는 이미 加入하여 그들의 位置를 굳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78年以後부터 非同盟戰略會議인 「黨·政聯合會議」를 每年 開催하면서 그들의 戰略을 提示하고 있다.

이같은 北傀의 態度에 對해 韓國은 北傀의 非同盟外交가 問題點이 內在된 것으로만 受容치 말고 그들의 非同盟外交가 成長하였음을 注視해야 한다.

韓國이 「HALLSTEIN」原則을 適用하여 北傀의 存在를 默殺하는 餘裕를 보였으나 現今에는 第3世界國家들이 韓國과 斷交한 事例를 留意해야 한다.

이제 南北韓의 第3世界外交는 量的外交에서 質的對決로 새로운 樣相을 보이고 있어 그간 北傀가 韓國을 追從하게 된 外交的 問題點을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第3世界 및 非同盟圈에 對한 外交政策의 果敢한 推進力이 問題이다.

中·蘇 紛爭의 渦中에서 提示한 所謂 北傀의 自主路線이 第3世界圈에서 活路를 開拓한 것은 持續的인 政策推進의 結果로 보

아야 한다.

韓國은 「6.23 平和統一外交政策」이 큰 呼應을 받으면서 이를 果敢히 履行치 못한 點이다.

北傀가 關係惡化 乃至 疎遠하던 中央阿, 「우간다」, 「케냐」, 「가나」, 「모리타니아」等과 關係를 改善한데 比해 「콩고」에서 自進撤収한 韓國이 지금까지 外交再開를 樹立치 못한 點도 檢討되어야 한다.

初期 北傀를 制圧하였던 韓國의 外交가 北傀를 代弁하는 「알제리아」와 같은 親韓國家를 選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地域 乃至 個別國家들과의 長期的 親善關係의 缺陷을 露出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韓國이 中南美諸國과 實質的 利害가 없이 名分만을 維持해 온 事實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外交活動上에서 提起되고있는 問題로서 大部分 1人體制의 長期執權을 누리고 있는 第3世界首腦들과의 頂上外交를 積極 實現한 것이다.

이過程에서 特히 軍事的同盟의 性格을 內包하고 있는 「親善協調」條約을 위시한 各種 條約을 締結하여 親北化 乃至는 親北離脱을 防止하는 外交戰術도 北傀外交의 特徵이라 할수 있다.

또한 情勢에 對處한 外交的 機動性이 問題이다.

最近 北傀가 「美·이란」事態에 便乘하여 「이란」과의 關係를 強化한 事實과 中南美의 左傾情勢에 積極的인 活動展開로 外交力量을 伸張시킨것은 韓國의 對中東外交와 對照的이다.

62年 韓國이 아랍圈에 對한 慎重한 檢討없이 「이스라엘」과 國交를 樹立하여 對아랍圈外交에 차질을 招來하였고 이를 克服하기 爲해 75年 中東政策을 轉換하였으나 劃期的 成果를 期하지 못한 것은 既 提示된 政策推進 問題以外에 外交的 機動性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北傀外交의 特性은 第3世界의 實利追求政策과 各國間의 紛爭等, 自國의 實利에 基因된 全般的 情勢로 因해 障礙가 造成되고 있다.

여기에 副應할 수 있는 經濟力量은 韓國이 앞서고 있음은 勿論이다.

韓國은 北傀의 經濟的 追跡을 또받고 있다.

韓國의 第3世界 및 非同盟圈에 對한 外交的 比重을 높이면서 長期政策이 定立되어야 하겠다.

< 亞・中東・阿 및 中南美에서 南北韓力量現況 >

* 은 第3世界 및 非同盟국이 아님.

1. 亞細亞地域

80.6.20 現在

南北 区分 国名	韓 国		北 傀		
	国数	国 名	国数	国 名	
大 使 関 係	常 駐	14	日本,*自由中国, 泰国, 比 馬來, 印度, 印尼, 싱가포르 버마, 방글라데쉬, 스리랑 카, 濠, 뉴질랜드, 네팔	14	馬來, 印度, 印尼, 파키스탄 네팔, 아프카니스탄, 싱가포르 방글라데쉬, 버마, 蒙古, 中共,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兼 任	8	西사모아, 말디브, 통가, 피지,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 투발루, 나우루	4	말디브, 스리랑카, 泰国, 파푸아뉴기니아
	修 交 外 交	1	키리바티	2	피지, 西사모아
	合 意 探 結			1	濠洲
計	23		21		
總 領 事	1	파키스탄			
通 商 代 表 部			1	泰国	
斷 交	3	아프카니스탄, 라오스, 베트남			
總 計					

2. 中東・阿 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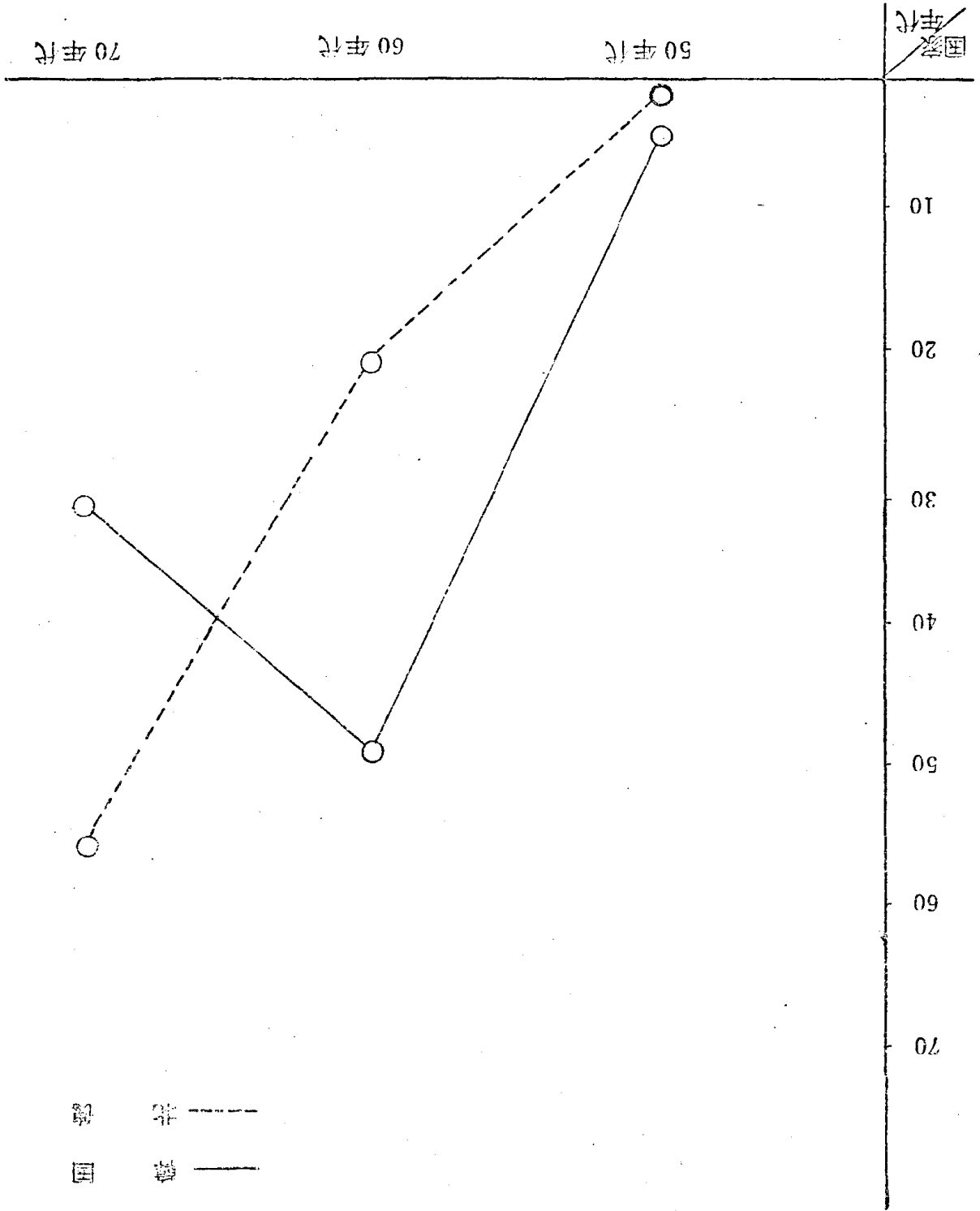
80.6.20 現在

区 分	南北 名	韓 国			北 傀	
		国数	国 名	国数	国 名	
大 使 関 係	常 駐	25	모로코, 아이보리, 카메룬 세네갈, 어퍼볼타, 우간다 자이레, 케냐, 中央阿, 가 봉, 시에라레온, 에치오피 아, 라이베리아, 가나, 모 리타니아, 수단, 이란, 튜 니지아, 사우디,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오만, 쿠 웨이트, 나이지리아	39	기네비싸우, 나이지리아, 차 드, 루완다, 에치오피아, 中 央阿, 기네, 말리, 콩고, 우 간다, 토고, 부룬디, 감비아 탄자니아, 시에라레온, 소말 리아, 가봉, 赤道기네, 카메 룬, 잠비아, 베닌, 세네갈, 자이레, 어퍼볼타, 모잠비그 말라가쉬, 앙골라, 가나, 튜 니지아, 예멘, 알제리아, 애 급, 시리아, 이란, 이락, 수 단, 南예멘, 리비아, 요르단	
	兼 任	14	니제르, 차드, 말라가쉬, 말라위, 감비아, 레소토 보츠와나, 모리셔스, 스와 질랜드, 이스라엘, 코모르 지부티, 기네, 赤道기네	8	모리셔스, 보츠와나, 라이베 리아, 산토메푸린시페, 케이 프베르데, 코모르, 세이셸, 니제르	
	修交 合意	1	아랍토후국	3	케냐, 모리타니아, 짐바브웨	
	外交 凍結					
計		40		50		
總領事		2	애급, 리비아			
通商代表部		1	레바논	2	레바논, 쿠웨이트	
斷交		5	토고, 베닌, 콩고, 루완다 세이셸			
總計						

3. 美洲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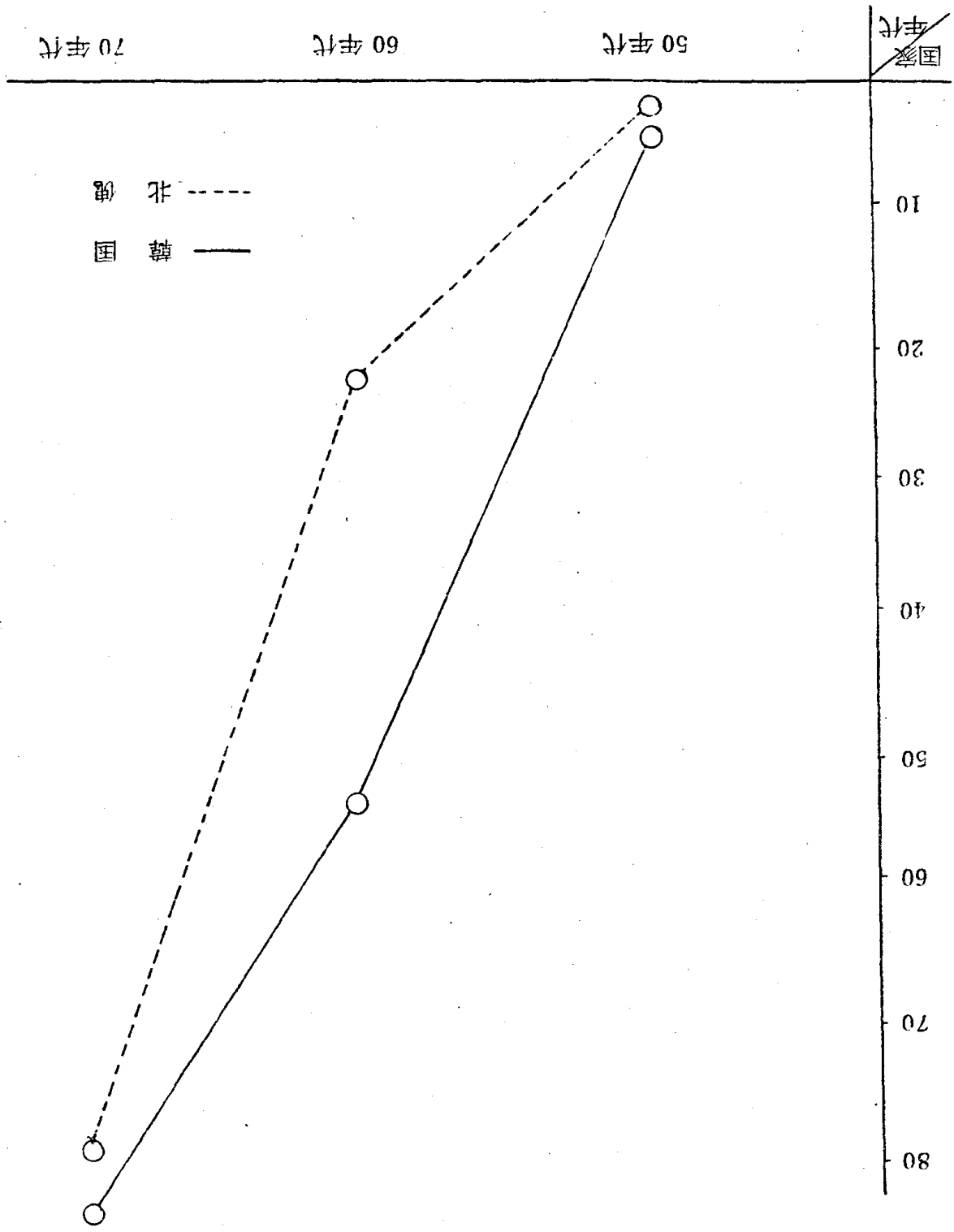
80.6.20 現在

区分	南北 名	韓 國		北 僞	
		国数	国 名	国数	国 名
大 使 関 係	常 駐	18	美国*,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알젠틴, 칠레,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에콰도르, 우루과이, 수리남 베네주엘라, 코스타리카, 자마이카, 과테말라, 볼리 비아, 파라과이	4	쿠바, 가이아나, 자마이카 니과라과
	兼 任	11	니카라과, 하이티, 혼두라 스, 도미니카(共) 가이아나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발바 도스, 세인트루시아, 도미 니카(聯), 세인트빈센트	3	그레나다, 발바도스, 베네주엘라
	修交 合意 外交 凍結			4	코스타리카, 도미니카(聯) 세인트루시아, 멕시코
計		29		11	
總領事					
通商代表部				1	페루
断交				2	칠레, 알젠틴
總計					



<年代別、南北韓 外交力量 拡大現況>

—— 南 韓
- - - 北 韓



<年代別 南北韓 外交力量 総計現況>